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일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2년 4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이은주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2년 1~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30,287,340		
구 분	2022년 1월		2022년 2월	
자 동 이 체	756명	15,997,700	627명	8,997,750
지 로	54명	1,362,070	92명	1,482,490
CMS이체	101명	1,220,690	101명	1,226,640
합 계	911명	18,580,460	820명	11,706,880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600,000	제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1,0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0,2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1,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9,037,340	출판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0,287,34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2022. 03 / 제62호

펴낸날 2022. 03.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 신부님 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제목을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건설하기"로 정하시어, 우리 모두 그 누구도 내버려 두는 일 없이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임무를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은 '관심'입니다.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요즘 '시노달리따스'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생활로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홀로 고립된 상황 안에서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결심을 하지만 교황님이 말씀하신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무관심'에 대한 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채우고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아픔 그리고 고뇌에 대해서 잘 보듬어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직 보트를 타고 안개 속을 지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두려움에 있는 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 건설하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희망의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 공동체 소식

#### 베트남 공동체 소식\*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쌈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문화(녹탄(LOC THANH): 봄의 새싹이 움튼다)가 있습니다. 이 말쌈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기억하며 지냅니다. 받은 말씀이 빛이 되어 올 한 해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설날 미사도 미사 시간대를 늘려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주민들에게 미사 안에서 위로 받고 설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설날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베트남 전통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헤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힘든 시기에 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제15회졸업식>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졸업생 2명의 어린이와 어머니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어린이 모두 4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함께 지내며 각별한 우정을 맺어왔었는데 이번 졸업으로 헤어지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아 송별파티도 준비했습니다. 24시 반에서 지내다 떠난 친구도 초등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미술치료>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 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애착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수업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자기표현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 사례가 늘었으며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 중 공격성이 강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협력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정도까지 성장하고 생활에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와도 소통의 기회가 늘었고 부모님에게 어린이의 상태를 알려주어 부모님도 자신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선생님, 어린이, 부모님 모두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회 소식\*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본 위원회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며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별 공동체는 감염 예방 위해 2월 한 달간 미사를 중단하고 온라인 미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각 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확산세가 줄어들어 더 나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필리핀공동체 소식\*

산토니노(Santo Nino=Holy Child=아기 예수) 축제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산토니노상(아기예수상)은 1521년 세부 족장과 그의 백성이 가톨릭 세례를 받은 후 스페인 선교사들이 족장의 아내인 조안나 여왕에게 세례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산토니노 축제가 가톨릭 신앙 시작의 상징이고 이 산토니노상은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산토니노 축제는 1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거행합니다. 필리핀 공동체도 매년 이 날을 거룩하고 성대하게 기념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9일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 상담실 소식\*

이주노동자 상담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가지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 2021년 현황\*

33개국 / 195명 / 임금, 의료, 산재, 쉼터, 출입국, 기타 관련 상담	
체류자격 유형	미등록 노동자 121건 62%, 등록 노동자 74건 38%
상담 유형	의료 55.9%, 기타 26.1%, 쉼터 9.2%, 임금(퇴직금 포함) 6.2%, 산재 2.6%

체류자격 상 미등록 노동자들이 등록노동자들에 비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상담실 이용률이 높았으며 상담 유형별로는 의료가 반수 이상으로 전년대와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심장 기형, 무항문 등의 선천성 기형을 보인 환아의 사례는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의 지원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인과 질환, 치과 진료 등의 비교적 경미한 사례는 위원회 인근 협약을 맺은 지역병원으로 연계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술 등의 고비용이 필요한 노동자의 경우는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 만성질환, 고비용의 만성환자의 경우는 가톨릭신문사의 모금을 통해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 사례 중 금년도 특이점은 미등록 노동자의 백신 접종 관련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미등록 노동자들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보건소에서 임시 번호를 부여 받아 예약, 접종 등을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예약 및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많은 기관과 후원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잘 선용하기 위해(소식지 발행 비용과 우편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2021년부터 소식지와 자료의 발행주기를 격월로(1, 3, 5, 7, 9, 11월 발행) 변경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점에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 이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발송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02-924-9970/1)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